교육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배포 2026. 11. 11.(수) 08:00 | 보도시점 (인터넷)2026. 11. 11.(수) 12:00 (지 면)2026. 11. 12.(목) 조간

미국 한국어반 고등학생들의 한글 그림,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 걸린다

- 교육부 산하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MOMA)에 현지 한국어반 및 한글학교 소속 고등학생 작품 24점 전시
- '경계를 넘어선 한글'을 주제로 학생들이 자신의 한국어 학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시를 통해 지역사회에 소개
- 【관련 국정과제】 99-4.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체계 구축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12일(목)부터 내년 4월 20일(화)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이하, 현대미술관) 내 공용공간에 현지 학교 한국어반 및 주말 한글학교* 소속 고등학생들의 미술작품 24점을 전시한다.

※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SFMOMA)은 미국 서부 최초의 현대미술관이자 미국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관 중 하나

* 재외동포 자녀에게 한국어 등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자생 단체

이번 전시는 한국어교육과 예술교육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로서, 교육부 산하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과 현대미술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전시에 참여한 학생들은 미술 전공자가 아닌,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일반 고등학생들이다. 학생들은 '경계를 넘어선 한글'을 주제로 자신만의 시각을 담아 한글과 한국문화를 표현하며, 한글을 단순한 문자가 아닌 창의적 표현의 매개로 탐구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에 '핵심조각'이라는 작품으로 참여한 풋힐 고등학교 소속 아나스타샤 콜치나 학생은 한글과 관련된 요소들을 퍼즐 조각으로 표현하여 한글의 다양성을 나타냈다. 로웰 고등학교 소속 크리스티나 킴 학생은 '한식으로 이어지다'라는 작품을 통해 친구들과 한국 음식을 나누며 한국문화를 소개했던 경험을 그려냈다.

전시 공간에는 학생들의 작품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과 제작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한다. 또한, 미국 현지 학교에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의 역할도 알린다.

< 전시 작품 >



< 작품 제작과정 >



교육부는 1999년부터 미국 공교육 내 한국어반 운영을 지원하며 한국어교육 기반을 넓혀왔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한국어반 운영 학교는 2016년 155개교 1만 4천여 명에서 2026년 267개교 2만 6천여 명으로 10년간 7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의 적극적인 한국어교육 홍보로 2개 고등학교*에 콜로라도주 최초의 한국어반이 개설되었다.

* 콜로라도 윌리엄 스미스 고등학교(William Smith High School), 포지 크리스천 고등학교(Forge Christian High School)에 각각 방과후 1학급 신설

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전시는 융합 교육 방식으로 한국어 학습과 예술 창작 활동을 결합한 의미 있는 사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한국어교육을 여러 교육 분야와 연계하며, 다채롭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학생 한글 그림 전시 개요

담당 부서	국제교육기획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책임자	과장	최윤정 (044-203-6780)
		담당자	서기관	이가원 (044-203-6785)
			교육연구사	한슬기 (044-203-6794)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	책임자	원장	허혜정 (+1-415-590-4058)

붙임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학생 한글 그림 전시 개요**

□ 전시 개요

○ (**전시명**) 경계를 넘어선 한글(Hangeul without Borders)

○ (**기간/장소**) '26.11.12.~'27.4.20.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내 Steps Coffee

※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서 알엠(RM) 개인 소장품 특별전 진행('26.10.3.~'27.2.7.)

○ (**전시내용**) 학생 작품 24점 및 작품 제작 과정 소개 영상

○ (**참가대상**)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고등학교 한국어반 및 주말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고등학생

○ (**주관/협조**)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 주요 작품

	• (**작품명**) 핵심 조각 (The Key Piece) • (**작가**) 아나스타샤 콜치나 (Anastasia Kolchina) • (**소속**) 풋힐 고등학교 (Foothill High School) • (**전시 소감**) 이미 알고 있던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추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한국의 대표 명소와 역사적 예술작품, 전통 스포츠까지 알게 되었다. 이 작업을 통해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작품명**) 정 (Jeong) • (**작가**) 한다윤 (Dayun Han) • (**소속**) 실리콘밸리 한글학교 (Silicon Valley Korean School) • (**전시 소감**)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한국어에 대해 깊게 알아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작업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어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은 경험이었다.
	• (**작품명**) 한식으로 이어지다 (Connecting through Korean Food) • (**작가**) 크리스티나 킴 (Kristina Kim) • (**소속**) 로웰 고등학교 (Lowell High School) • (**전시 소감**) 밥알과 참깨, 파 같은 작은 부분들을 자세히 그리는 작업과 젓가락을 다른 종이에 따로 그린 후 풀로 붙이는 작업이 특히 재미있었다.